

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	학번	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랑가라	기간	3주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, 교실은 깨끗하고, 다운타운과도 그리 멀지 않아서, 학교 끝나고 놀러다니기도 나쁘지 않았다. 하지만 등하교시 49번 버스를 타는 학생들이 많은데, 항상 꽉 차기 때문에 걸어다녀야 했던 학생들도 꽤 있었다. 학교자체는 큰 학교는 아닌데, 의상이나 예술 쪽으로 밀고있는 학교 같아 보였다. 학교 안에 카페와 서브웨이 등이 있어서, 점심을 깜빡하더라도 괜찮다.
수업	<p>수업내용, 수업방법, 분반여부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겨울에는 분반을 하지 않고 다 같이 한반에서 수업을 듣는데, 그러다 보니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말을 하게 돼서 영어를 많이 쓴다거나 도움이 된다고는 크게 느끼지 못했다. 숙제도 우리가 금방 끝낼 수 있는 정도였고 이틀에 한번정도이며, 주말에 일기 쓰듯이 적는 것이 다였다. - 선생님은 되게 친절하시며, 초반 수업은 영어회화 수준이며, 마지막 주가 될수록 좀 더 형식적인 토론에 대해 배우거나 서로 토론하거나 발표를 준비하는 것을 배운다. - 수업을 할 때 쓰는 종이를 큰 바인더에 끼워주는데, 따로 얇은 파일을 챙겨가면 좀 더 가볍게 가방을 쌀 수 있다. - 랑가라 학생들이 학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만나는 기회는 1번뿐이었다. 그 쪽 학생들과의 잦은 만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.
Activity	<p>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등 - 컬링, 스노우쇼잉, 아쿠아리움, 박물관, 그랜빌아일랜드 등을 다녀오는데, 스노우쇼잉때 장갑, 방수신발, 바지등을 준비하라고 하는데, 그쪽에서 신

	발을 빌리는 것이 8달러 정도이므로 가방을 가볍게 준비하고 싶다면 그냥 빌리는 것이 현명하다. 또한 눈이 오는데 패딩은 방수가 아니므로, 롱패딩이 다 젖는다. 따로 우비나 방수가 되는 것을 가져가 위에 걸쳐주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.
--	---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항상 비가 온다. 바람도 엄청 분다.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거나 현지에 가서 바로 장만하는 것이 좋다. 또한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한데, 평소에 영상 5도에서 7도였다. 롱패딩이나 너무 두꺼운 패딩은 더울 수 있다. 그렇다고 너무 덥지도 않으니 레이어드해서 벗거나 더 꺼입을 수 있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홈스테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, 나는 다운타운에서 버스를 타면 노숙자들 많은 거리를 지나쳐야 했다. 게스트타운과 차이나타운 사이에 있다. 그곳 사람들은 노숙자와 현지인들의 구분이 좀 힘든데, 그 버스를 타면 노숙자들에게 시비가 많이 털릴 수 있으니 밤늦게 다운타운에서 '20빅토리아'버스는 타지 않은 것이 좋다.</p> <p>또한 집 근처 거리도 가로등이 많이 없고 어두우므로 겨울에 갈 때에는 조심해서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(0) 외부 숙소() 기타()</p> <p>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나는 홈스테이 가정을 잘 만났는데, 설거지나 빨래, 점심도시락등 다 아주 머니가 해주셨다. 하지만 많은 홈스테이 가정이 다 스스로 하는 것 같다. 또한 밴쿠버가 여러인종이 사는 곳으로, 홈스테이 가정이 아시아인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일 확률이 더 높다. 홈스테이에 대화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, 홈스테이 오피스에 가서 말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() 홈스테이 (0) 외부식당 (0) 기타()</p> <p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싼 레스토랑을 이용하면 팁포함 15달러정도이다. 그런데 좀 더 맛있고 좋은데를 가면, 20~30달러를 넘긴다. 식비가 엄청 빠지므로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홈스테이에서 저녁을 먹거나 해서 식비를 줄였다. 다른방법으로는 '다인아웃'인데, 코스별 요리를 20,30,40달러로 먹을 수 있고 따로 시키는 것 보다 훨씬 싸고 좋다.</p>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</p> <p>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한다. 49UBC를 타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, 항</p>

상 사람이 많아 걸어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. 랑가라학교에서 주는 버스카드를 이용하면 버스로는 대부분 갈 수 있고 스카이 트레인타는 방법은 그쪽에서 알려주는데, 주말을 이용하면 둘다 상관없다.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 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, eTA, 여행자보험	1,372,900+7,000? +35,000	출국 전 사전 납부
유심	52,000	
식비	400,000	
쇼핑+심부름	460,000	
교통(빅토리아페리,스카이트 래인)	35,000	
합계	2,361,90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.

- 수돗물 맛이 싫어서 먹기 싫다면 물을 사 마셔야 한다. 비싸다 2-3달러
- 유심은 필수다!
- 비바람이 칠 수 있으니 튼튼한 우산을 가져가거나, 가서 장만하는 것이 좋다. 약한 접이 식은 뒤집어 지고 망가질 수 있다. 매일 비가 온다.
- 빅토리아 섬은 날씨가 좋은 편이지만 가는 데 5시간이 걸린다.
- *스노우 쇼잉을 할 때 눈이 올 수 있는데, 젖어도 상관없는 모자와 장갑을 꼭 챙겨야 하고, 패딩이 방수가 아니라 다 젖기 때문에 우비나 다른 방수제품을 위에 입거나 따로 장만하는 것이 좋다. 만약 방수제품 바지와 자켓을 빌리고 싶다면 각각은 20달러, 둘 다는 28달러에 빌릴 수 있다. 방수신발은 그 곳에서 8달러를 주고 빌리는 것이 더 좋다. 캐리어만 무거워 진다. 홈스테이가정과 미리 연락이 된다면 혹시 내사이즈의 신발이나 제품을 빌릴 수 있는 지 물어보는 것도 좋다.*
- 3주라고 무게계획으로 왔다간 큰 코 다친다. 오히려 좀 더 잘 알아보고 어느 정도 대중 계획을 세워 오는 것이 좋다.
- 음식이 대부분 짠 편이다. 만약 못 먹는 다면 소금을 덜 넣어달라고 미리 홈스테이와 레스토랑 주문 시 얘기하는 것이 좋다.
- 서비스 진짜 별로면 팁 안줘도 상관없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수업이 생각보다 엄청 재밌고 영어를 많이 쓰게 되지는 않는다. 오히려 글벌에 살 때가 영어를 더 많이 쓰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다.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,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, 버스를 놓치면 20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편이다. 환승을 해야 한다면, 출발하기 전에 미리 그런 점 까지 알아봐야 해서 조금 귀찮은 감이 있었다. 다음에 밴쿠버에 오게 된다면 무조건 차를 렌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. 또한 3주라는 기간이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게 된다면 비행기 값에 숙소 값, 식비까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야 할 텐데, 학교에서 숙소값과 점심값은 해결해 주고 비행기 값만 내고 가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. 해외에서 현지인들과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되게 색다른 느낌이었고, 교환학생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느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사진설명 랑가라학교	사진설명 홈스테이



사진설명
스노우쇼잉- 조금 위험할 수 있음..



사진설명
밴쿠버박물관 옆에 버니얼파크에서 다
같이 가서 찍은 사진



사진설명
학교수업 : 조별로 큰 판에 저렇게
꾸미고, 영어로 짧게 프레젠테이션



사진설명
스탠리파크-맑은 날씨에 감